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¹⁾

Typology of men's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abou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
박사과정 송지은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
조 교 수 한경혜

Dept.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

Ph.D. Candidate Ji Eun Song

Dept.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Gyoung Hae Han

〈목 차〉

I. 문제 제기	IV. 연구방법
II. 관련연구 고찰	V. 결과 및 논의
III. 연구문제	VI.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develop the typology of relative costs-benefits perception abou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explore the group differences i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family context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level.

For these purposes, data was gathered from 342 fathers who experience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ithin past three year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1. The level of men's perceived benefits abou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as higher than the level of costs.

2. The typology of relative costs-benefits perception abou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ere 〈high benefits-high costs〉, 〈low benefits-high costs〉, 〈low benefits-

1) 1994년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low costs), and (high benefits-low costs). The discriminant variables among 4 groups were marital satisfaction, birth planning, educational attainment, and kinship's emotional support.

I . 문제제기

본 연구는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한 남성의 부모됨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화 및 각 유형집단의 특성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291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질문한 조사결과를 보면, 결혼식날(14.8%), 학교나 회사에 합격했을때(11.0%), 배우자를 만날날(9.1%)에 이어 자녀가 태어난 날(8.6%)이 네번째로 지적된 바 있다(조선일보 1993년 5월 17일자). 이는 행복감을 주는 많은 인생사건 중에서 자녀의 출생이 주요 위치를 차지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첫자녀의 출생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이혜란, 1984; 이숙현, 1988, 1990; Russell, 1974; Hobbs & Cole, 1976; Belsky, Spanier, & Rovine, 1983; Lamb, Pleck, & Levine, 198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모기로의 전이가 어려움을 유발하는 인생사건이 될 수 있다. 첫자녀의 출생은 가족체계를 2인체계에서 3인체계로 변화시키면서 가족 구성의 재조직화와 가족원 역할의 재정의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해 남성은 이전까지 수행해오던 배우자 역할 외에 부모 역할을 새로이 부과받게 되어 새로운 역할 부담에 따르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Hobbs, Wimbish, 1977). 새로 태어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며 이로 인한 발달적 변화는 인지적, 행동적인 기능의 일상적인 패턴을 수정하게 하여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LeMaster, 1957; Dyer, 1963; Wainwright, 1966; 양명숙, 1991).

남성의 경우는 대개 부모기로의 전이시기가 생애과정에서 직업경력상의 초기단계와 중복되므로 역할 중복으로 인해 부모기로의 전이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Lamb, Pleck, & Levine, 1986). 실제로 한국남성의 성인기 전이 유형에 대해 고찰한 연구를 보면, 산업화 이후 현대로 올수록 졸업, 취업, 군복무, 결혼이 짧은 기간내에 완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한경혜, 1993), 역할중복에 의해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어려움을 보다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 있지만(Hobbs & Cole, 1976; Steffensmeier & Steffensmeier, 1975),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면서 결혼 적응의 저하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근래의 남성들은 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므로,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해 부모기 전이시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 또는 대가 중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은 보상과 대가를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연속선 상의 양극단에 위치한, 즉 보상과 대가가 상쇄되는 관계(zero-sum)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그림 1) 연속선상의 보상-대가 개념

보상 ————— 대가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부모기로의 전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보상과 대가 모두를 지각하게 되므로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찰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Belsky, Rovine, & Spanier, 1983; Stemp,

Turner, & Noh, 1986)의 관점을 수용하여 이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은 시도하고자 한다. <그림 1>과 같이 보상과 대가를 연속선상의 양극단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2>와 같이 보상과 대가가 각각 독립적인 축을 갖는 이차원적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보상과 대가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유형에 대한 고찰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림 2> 독립된 차원의 보상-대가 개념

		대가 高	
		유형 II 보상低-대가高	유형 I 보상高-대가高
보상 低			보상 高
		유형 III 보상低-대가低	유형 IV 보상高-대가低
		대가 低	

이러한 유형화 시도와 각 유형집단에 대한 탐색을 통해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며,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점에 본 연구의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II. 관련연구 고찰

1. 관련개념 정의

1) 부모기로의 전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를 첫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부부 2인체계에서 3인체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보상: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상은 상호작용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만족감이나 기쁨 등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것이 포함된다(Taubaut & Kelly, 1959). 본 연구에서는 첫자녀의 출생으로 부모됨을 통해 남성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이익을 부모됨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한다.

3) 대가: 사회교환이론에서는 대가를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Taubait & Kelly, 1959), 또는 개인이 싫어하는 상태, 관계, 상호작용, 주변환경, 감정으로 정의한다(Nyc, 1979). 본 연구에서는 부모됨으로 인해 남성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제약과 불편을 부모됨에 대한 대가로 정의한다.

2.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부모기로의 전이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됨이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는 견해와(이혜란, 1984; 이숙현, 1990; Hobbs, 1968; Russell, 1974; Hobbs & Cole, 1976; Belsky, Spanier, & Rovine, 1983; Lamb, Pleck, & Levine, 1986), 부정적 측면을 갖는다는 견해(양명숙, 1991; LeMaster, 1957; Dyer, 1963; Wainwright, 1966; Uhlenberg, 1970; Hobbs, Wimbish, 1977; Ventura(1987)에서 재인용)가 공존하고 있다.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풍족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취감, 자녀성장에 영향을 주며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쁨의 증가(Lamb, Pleck, Levine, 1986), 부모가 됨으로써 얻는 기쁨과 만족감(Russell, 1974), 방위가족과의 접촉의 증가(Belsky, Rovine, 1984), 삶에 대한 보다 높은 만족감(Umberston & Gove, 1989)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자녀를 둔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율이 낮고(Korbin & Hendershot, 1977), 흡연이나 약물복용등 건강에 부정적인 행동을 보다 적게 한다고 한다(Umberston, 1987).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결혼만족도의 저하(고선주, 옥선화, 1993; 양명숙, 1991; Belsky, Spanier, & Rovine, 1983),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데서 오는 부모역할 수행의 지루함, 친구나 동료에게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Lamb, Pleck, & Levine, 1986)등을 지적할 수 있다.

남성이 부모기로의 전이를 대가로 지각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첫째, 역할중복, 역할과다에 의해 부모기로의 전이가 어려움을 초래하여

대가로 작용할 수 있다(Miller & Sollic, 1980; Belsky, Spanier, & Rovine, 1983).

둘째, 예비사회화와 역할명료성의 부족에 의해 부모됨이 대가로 지각될 수 있다(Steffensmeier & Steffensmeier, 1975). 아버지역할 수행에 있어서 더욱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LeMaster (197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남성이 부모역할을 학습할 기회가 적게 제공되어 실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근래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증가는 남성에게 이전보다는 더욱 능동적인 부모역할의 수행을 요구하게 되므로 남성이 전이과정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LaRossa(1986)가 부모기란 사회적 제도이며 부모로서의 행동은 사회화와 그것에 대한 내면화의 산물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화 및 교육체계가 전적으로 부족하고, 성공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에(Rossi, 1968) 부모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남성이 부모됨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역할은 그 특성상 실제(reality)에 근거한 예비사회화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예비부모교육의 확대 등을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이과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의 특성으로 인해 자녀출생을 전후로 한 단기종단적 연구(고선주, 옥선화, 1993; 양명숙, 1991; Belsky, Spanier, & Rovine, 1983; Miller & Sollic, 1980)가 여러편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연구의 경우, 부모기로의 전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미미하며 전이시기를 전후한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와(고선주, 옥선화, 1993; 양명숙, 1991; 이숙현, 1988, 1990), 전이를 경험한 부모의 만족감과 어려움을 측정한 연구(이혜란, 1984)를 볼 수 있다. 부모기로의 전이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첫자녀의 출생이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결과(고선주, 옥선화, 1993; 양명숙, 1991)와, 자녀출생 이후 결혼만족도에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결혼만

족도가 상승되었다는 결과(이숙현, 1988, 1990)가 공존한다. 이는 이숙현(1988, 1990)이 심층면접법을 통해 질적연구를 실시하였고 고선주, 옥선화(1993)와 양명숙(1991)은 질문지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데서 오는 차이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와 달리 심층면접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변화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까지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3.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에의 관련요인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며, 이 변수들의 차이에 의해 보상-대가 수준에 개인차가 나타난다. 보상-대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정상황 변수 등이 제시될 수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개인의 가치 및 동기, 경제적-사회적 환경(Lamb, Pleck, & Levine, 1986; Ventura, 1987)을, 가정상황 변수로는 자녀의 성별(이혜란, 1984), 결혼기간(이혜란, 1984), 예비사회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도(이숙현, 1990; 이혜란, 1984; Russell, 1974), 결혼만족도(Russell, 1974; Belsky, Rovine, & Spanier, 1983; 이혜란, 1984), 부인의 취업여부(LeMaster, 1957; Ventura, 1987), 출산계획 여부(Russell, 1974), 사회적 지원(이숙현, 1990; Belsky, Rovine, 1984; Stemp, Turner, & Noh, 1986)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유형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이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정상황 변수, 사회적 지원 변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이 포함되었고, 가정상황 변수로는 부인취업 여부, 결혼만족도, 출산계획 여부가 포함되었으며, 사회적 지원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가사일 및 자녀돌보기 도움, 금전적 지원,

물질 지원, 정서적 지원 수준과 친척의 도움 유무, 고용인 유무가 포함되었다.

Ⅲ. 연구문제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 및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남성의 보상-대가 지각수준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남성의 보상-대가 지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집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정상황 변수, 사회적 지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Ⅳ.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남성의 보상-대가 지각수준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36개월 이하의 첫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1992년 12월부터 1993년 8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농가정책과 가족학 연구실에서 실시하는 남성의 생애과정 파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배부된 설문지 중에서 첫자녀가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342 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척도

남성의 부모됨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obbs & Cole(1975), Steffensmeier(1982), 이해란(1984)의 연구를 참고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보상 측정에는 12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전이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기쁨, 친척관계의 좋아짐, 아내와 가까워짐이 포함되었다. 대가 측정에는 16문

항이 포함되었고 전이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감정상의 문제, 실제생활상의 문제, 아내와의 관계 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보상 16문항의 Cronbach's α 는 .8057, 대가 12문항의 Cronbach's α 는 .860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의 구명을 위하여 PC의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유형집단간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다항로지트 모델(multinomial logit model) 분석에는 PC의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Ⅴ.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주로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30~35세의 범주에 약 71%가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36개월 이하의 첫자녀를 둔 아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 분포상의 편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다수의 남성들이 정해진 일정한 연령범위 내에서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34.1%, 대학 졸업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65.9%로 나타나서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 분포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56.2%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19.7%), 생산직(12.3%), 판매-서비스직(9.1%)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성의 월평균 수입은 60~90만원이 4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90~120만원(29.8%), 120~150만원(1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여자가 49.9%, 남자가 50.1%로 여자와 남자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다. 자녀의

월령 분포를 보면, 12개월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62.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개월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2.7%를 차지하며 6~12개월이 30.1%를 차지한다. 한편 24개월 이상은 전체 응답자의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취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 전체의 25.0%에 불과하였고, 비취업 주부인 경우가 75.0%에 해당되었다.

결혼만족도는 1~5점 분포를 갖는데, '매우-대체로 만족한다'에 해당하는 4점 이상이 응답자 전체의 77.9%로 나타나서 결혼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출산의 계획여부를 살펴보면 계획에 의해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70.1%, 계획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29.9%로 나타나서 계획에 의해 첫자녀를 출산한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2.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수준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수준을 살펴보면, 보상점수는 1.92~5.00까지 분포하며, 대가 점수는 1.19~4.56까지의 분포를 보여서 보상이 대가보다 높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평균은 보상 3.97, 대가 2.71로 나타나 남성의 부모됨에 대한 대가 지각보다 보상 지각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남성들도 자녀를 부부 이인관계의 방해자로 보거나 개인생활의 방해자로 보는 개인주의적 가치관보다는, 자녀를 중시하고 가족-친족집단과 가계를 중시하는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이숙현(1988, 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그러나 부모됨에 대한 보상지각이 대가지각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자신의 생식가족인 핵가족을 방위가족보다 중시하여 방위가족 구성원보다 자신의 생식가족의 구성원을 중시하는 경향의 한 표출로써 자신의 자녀의 출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

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

1)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집단

본 연구에서는 보상-대가 각 점수의 50%수준을 기준으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집단을 설정하였다.²⁾ 보상점수는 4.0점이 50%수준에 해당되었고, 대가점수는 2.75점이 50%수준에 해당되므로, 보상이 4.0점 이상이면 보상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4.0점 미만이면 보상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대가는 2.75점 이상이면 대가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2.75점 미만이면 대가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보상高-대가高>집단(유형집단 I), <보상低-대가高>집단(유형집단 II), <보상低-대가低>집단(유형집단 III), <보상高-대가低>집단(유형집단 IV)으로 유형화하여, 네 유형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네 유형집단의 규모를 살펴보면 <보상高-대가低>집단이 90명, <보상高-대가高>집단이 88명, <보상低-대가高>집단이 78명, <보상低-대가低>집단이 65명으로 나타나서 <보상高-대가低>집단의 구성원 수가 가장 많고 <보상低-대가低>집단의 구성원 수가 가장 적었다.

<보상高-대가高>집단은 평균연령과 소득이 네 유형집단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64.4%, 전문대졸업 이하가 35.6%이며, 집단 구성원의 약 1/4이 맞벌이 부부인 것을 볼 수 있다. 자녀의 출산을 계획한 경우는 65.9%, 계획하지 않은 경우는 34.1%로 나타났으며, 가정내에 고용인을 두고 있는 경우는 해당 응답자의 5.8%로 나타나서 고용 인력에 의해 받는 지원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은 가사일/자녀돌보기 지원-물품 지원-정서적 지원-금전적 지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상低-대가高>집단은 네 집단 중에서 결혼만족

2) 측정값의 상대적 수준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Cooney등(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도와 출산계획율이 가장 낮고, 교육 수준과 부인의 취업 비율, 고용인을 두고 있는 비율은 가장 높으며 소득은 월평균 약 117만원이다.

이 집단의 부모-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을 보면, 부인의 취업비율이 네 집단중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친척으로부터의 지원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부모-친척의 지원자를 구하거나 고용인을 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친척의 도움의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고 단지 고용인을 두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원자를 고용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남성이 부모됨을 대가로 지각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출산계획 역시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자녀 출산의 경우 그 전이의 급작스러움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계획율이 낮은 집단에서 대가가 높고 보상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보상低-대가低〉집단은 네 집단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고, 부인취업 비율, 친척외의 도움을 받는 비율, 부모-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비율이 네 집단중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을 두는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것은 이 집단의 소득이 네 집단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과, 이 집단이 부모-친척이나 친척외로부터 받는 도움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보상高-대가低〉집단은 구성원의 교육수준, 고용인을 두고 있는 비율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으며, 결혼만족도, 출산계획율, 부모-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구성원의 평균 연령과 소득은 다른 집단과 유사하며, 결혼만족도는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다. 부인의 취업비율은 다른 집단과 유사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출산을 계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친척외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고용인을 두고 있는 비율은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서 부모-친척의 지원 수준이 높은 것이 한 원인으

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보상-대가 지각의 4 유형집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정상황 변수, 사회적 지원간의 종속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짓 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범주Ⅳ(보상高-대가低)가 비교 기준이 되었으며, (범주수-1)인 3개의 식이 추정되어 각 독립변수 X_k 는 각각 3개의 추정계수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상과 대가가 모두 높은 집단인 유형 집단 I에 대한 로짓 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og \frac{P(I|X)}{P(IV|X)} &= 6.728 - 0.048X_2 - 0.295X_3 \\ &+ 0.008X_4 - 0.043X_5 - 1.092X_6 \\ &+ 0.041X_7 - 0.126X_8 + 0.028X_9 \\ &- 0.065X_{10} + 0.034X_{11} \\ &+ 0.008X_{12} - 0.112X_{13} \end{aligned}$$

다항 로짓 모델의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모델은 $\chi^2=767.71(df=900)$ 으로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상高-대가低〉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세 집단을 비교하였으므로, 분석결과를 통해 어떤 특성을 갖는 남성들이 〈보상高-대가低〉집단에 비해 유형 집단 I(보상과 대가 모두 높은 집단), II(보상은 낮고 대가가 높은 집단), III(보상과 대가 모두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보상高-대가低〉집단을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보고 전이경험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요인을 구별해내는 것(identify)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유형 집단 I, II, III에 비해 〈보상高-대가低〉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결혼만족도가 낮고,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부모기로의 전이에서 보상과 대가를 모두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이고, 결혼만족도가 낮고,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부모됨을 경험할 때 보상은 낮고 대가는 높게 지각할 확률이 높다. 한편,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모-친척으로부터의 가사일/자

〈표 1〉 다항 로짓 모델의 추정 결과와 유의성 검정

변 수	유형집단 I (보상高-대가高)		유형집단 II (보상低-대가高)		유형집단 III (보상低-대가低)	
	추정계수	χ^2	추정계수	χ^2	추정계수	χ^2
상 수 향(χ_1)	6.728	7.44**	7.420	7.96**	5.531	4.40*
연 령(χ_2)	-0.048	0.61	-0.004	0.00	0.046	0.49
교 육(χ_3)	-0.295	2.94	-0.724	12.36***	-0.290	2.29
소 득(χ_4)	0.008	0.27	0.014	0.63	0.008	0.11
부인취업(χ_5)	-0.043	0.05	0.027	0.01	0.060	0.06
결혼만족도(χ_6)	-1.092	14.62**	-1.685	29.05***	-1.230	15.71***
출산계획(χ_7)	0.041	4.61*	0.475	5.18*	0.373	2.88
자녀돌보기(χ_8)	-0.126	0.81	-0.198	1.68	-0.299	4.09*
금전적 지원(χ_9)	0.028	0.03	0.100	0.34	-0.013	0.01
물품 지원(χ_{10})	-0.065	0.11	-0.003	0.00	0.018	0.01
정서적 지원(χ_{11})	0.034	0.05	-0.006	0.00	-0.337	3.98*
친척의 도움(χ_{12})	0.008	0.00	0.297	2.30	0.380	3.43
고용인(χ_{13})	-0.112	0.09	-0.486	1.75	-0.403	1.05

Chi - Squared : 767.71*** (df = 900)

* p<.05 ** p<.01 *** p<.001

녀돌보기 지원, 정서적 지원이 적을수록 보상과 대가 모두를 낮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보상과 대가가 모두 높은 집단은 결혼만족도와 출산계획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첫자녀 출생이후 물리적, 정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결혼만족도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자녀 출생이후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이를 통해 새로 부모된 이가 경험하게 되는 사항들을 예비부모교육 과정을 통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첫자녀 출생을 경험한 부부가 변화된 새로운 상황 및 서로의 배우자에게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어 부모기 전이로 인한 결혼만족도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남성이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낮고 대가가 높은 집단은 부모기로의 전이의 네 유형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결혼만족도가 낮고, 출산

계획율이 낮은 경우에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출산계획율은 예비사회화 내지는 역할준비의 부족과 관련지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의 여지를 주고 있다. 자녀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가 자녀출산을 계획한 경우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예비사회화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예비사회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이 부모기로의 전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상과 대가가 모두 낮은 수동적인 유형집단은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모나 친척으로부터의 가사일/자녀돌보기 지원, 정서적 지원수준이 낮게 나타나므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남성의 부모됨에 대한 지각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

다. 정책적 차원에서 본다면 유아기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유아 대상 탁아시설의 증설과 이에 대한 이용기회의 확대가 요구되며,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부문제 및 자녀문제에 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VI.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첫자녀의 출생으로 인하여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한 남성을 대상으로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남성의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 및 각 유형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36개월 미만의 첫자녀를 둔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분석에 342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PC의 SPSS,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지각에서 보상 지각 수준이 대가지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대가 지각을 네 집단으로 유형화하였고, 이에 <보상高-대가高>집단(유형 집단 I), <보상低-대가高>집단(유형 집단 II), <보상低-대가低>집단(유형 집단 III), <보상高-대가低>집단(유형 집단 IV)이 포함되었다. <보상低-대가高>집단은 결혼만족도, 출산계획율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고, 교육수준, 부인취업율, 고용인을 두고 있는 비율은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低-대가低>집단은 소득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고, 부인취업율, 친척외의 도움을 받는 비율, 부모-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이 네 유형집단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高-대가低>집단은 구성원의 교육수준, 고용인을 두고 있는 비율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으며, 결혼만족도, 출산계획율, 부모-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네 유형집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정상황 변

수, 사회적 지원간의 관련성을 다항 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만족도가 낮고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남성은 부모기로의 전이에서 보상과 대가를 모두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고 결혼만족도가 낮고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남성은 부모기 전이에 대해 보상은 낮고 대가는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모-친척으로부터의 가사일/자녀돌보기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은 남성의 경우에는 보상과 대가 모두를 낮게 지각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남성의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수는 결혼만족도, 출산계획 여부, 가족이나 친족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남성의 지각유형에 결혼만족도가 중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전이를 경험한 부부가 변화된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첫자녀 출생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기 전이 이후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해줌으로써 전이 이후의 부부간 실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계획 여부가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지각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결과가 가족계획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가 출산을 계획한 경우에 비해 부모기로의 전이를 대가의 측면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바 있으므로 부모기 전이과정에서의 긍정적 적응을 위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원이 지각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한 가족에게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아기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탁아시설의 증설과 이에 대한 이용기회의

확대가 요구되며,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문제 및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제언을 종합해 보면,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남성의 긍정적 적응을 위해서 예비부모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기로의 전이를 앞두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첫자녀 출생이후 가족체계의 변화 및 개인적 변화 등에 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기로의 전이 이후 가족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으로 탁아시설이나 상담시설이 확대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주제의 특성상 조사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표본추출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편향된 경향을 보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전이에 따르는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적 연구를 실시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전이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전이 이전과 이후를 함께 고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단기종단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횡단적으로 전이를 연구하는 데서 오는 편의(bias)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남성에 관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남성의 생애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참 고 문 헌】

- 1) 고선주, 옥선화(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2: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3호: 127-141.
- 2) 양명숙(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 논집* 제3호: 31-54.
- 3) 이해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 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2권: 161-181.
- 5)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제2호: 11-17.
- 6) 조선일보 1993년 5월 17일자.
- 7) 한경혜(1993), '한국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 유형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39집,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121-171.
- 8) Belsky, J., Rovine, M.(1984), 'Social-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55-462.
- 9) Belsky, J., Spanier, G.B., & Rovine, M.(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7-577.
- 10) Cooney, T.M., Pedersen, F.A., Indelicato, S., & Palkovitz, R.(1993). 'Timing of fatherhood: Is "on-time" optim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05-215.
- 11) Dyer, E.(1963),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25: 196-201.
- 12) Hobbs, D.F., & Cole, S.P.(1976), 'Transition to parenthood: A decade repl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723-731.
- 13) Hobbs, D.F., & Wimbish, J.M.(1976). 'Transition to parenthood by black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677-689.
- 14) Korbin, F., & Hendershot, G.(1977). 'Do family ties reduce mortalit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196-68?'.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737-745.
- 15) Lamb, M.E., Pleck, J.H., & Levine, J.A.(198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fathers and mothers', In Lewis, R.A., Sussman, M.B. (Eds.),

- Marriage and Family Review* 9. New York: The Howerth Press.
- 16) LaRossa, R.(1986), '*Becoming a parenthood*', Family Studies Test Series3. Sage Publication: Beverly Hills London New Delhi.
- 17) LeMaster, E.E.(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352-355.
- 18) Miller, B., & Sollie, D.(1980), 'Normal stresse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29: 459-465.
- 19) Nye, I.(1979).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Burr, W.R., Hill, R., Nye, I., & Reiss, I.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New York: The Free Press.
- 20) Rossi, A.S.(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26-39.
- 21) Rubin, L.(1976), '*Worlds of Pain: Life in the Working-Class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22) Russell, C.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294-301.
- 23) Stemp, P.S., Turner, R.J., & Noh, S.(1986),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postpartum period: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71-277.
- 24) Taibaut, J.W., & Kelly, H.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25) Umberson, D.(1987). 'Family status and health behaviors: social control as a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s* 28(3): 306-319.
- 26) Umberson, D., & Gove, W.R.(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 27) Ventura, J.N.(1987), 'The stresses of parenthood reexamined', *Family Relations* 36: 26-29.
- 28) Wainwright, W.H.(1966), 'Fatherhood as a precipitant of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40-44.